

## 2023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 연재

CAF뉴스레터는 2023년 실패연구소 에세이 공모전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을 연재합니다.  
이번호에 실린 에세이는 ‘배움상’을 수상한 두개의  
작품입니다. 삶과 학문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개인과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본 두 KAISTian의 제안을 담았습니다.

에세이공모전 수상작 연재

# KAISTian story



# CAF 2081

안치영  
(KAIST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

도형을 뒤집으면 다른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회전은 참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내 인생도 180도 꾸깃꾸깃하게 회전한 적이 있었다.

2014년 새해를 지나 초여름까지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나날들이었다. 인도의 미국 대사관 학교를 재학하며 성적 최우수 메달도 목에 걸어보고 그래서인지 인도의 여름 공기는 후텁지근하고 들끓었지만, 그 기분이 썩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스스로 성실히 노력해온 자신을 칭찬해주려고 했다. 이제 내가 하던 공부 방식대로만 이어서 한국까지 가져가면 되겠다는 다짐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기쁨은 한순간이었다. 한국에 오면서부터 막막하면서도 설렘 한 스폰이 들어있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에 전학을 온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지만, 그동안 스스로 잘해온 것처럼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기존에 하던 만큼 성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6월 초의 한국의 공기도 후텁지근하고 습했지만, 인도에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좀 더 나의 심장을 좁혀오는 더위였다. 정조가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학을 오고 난 후 첫 중간고사의 결과는 내 기준에서 처참했다. 특히,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왜 학원에 다니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지문을 잘 읽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정해진 정답이 있었다.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무리 뜻이 맞아도 이상적인 답이 아니었다. 암기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은 시험 형식이였다. 성적이 우수했던 나를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려뜨린 시기였다. 불과 3개월의 차이로 인생의 점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변해버릴 수 있나 라는 허탈감을 느꼈다. 아주 완벽한 180도 회전이였다. 내 안정적인 마음의 판을 뒤흔들어 버렸다. 일종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그 이후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기말고사도 별 다를 바 없었다. 조금 점수가 올랐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 상심에 빠진 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를 초조하게 버티듯이 살아왔다. 아니면 아예 해탈한 상태에서 걸으려는 일상을 나름 즐겁게 살아갔지만, 속은 재처럼 타들어갔다. 부모님이 실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기존에 나를 알던 친구들이 내 성적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 압박감이 나를 계속 조여왔다. 심지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영어를 사용하여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지, 한국에서 잘 살아남을 수는 있을지 그리고 제일 시급한 대학교는 무사히 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 한 움큼 뭉쳐 마음속에 탐처럼 쌓이고 쌓였다. 한국의 입시는 누구한테나 다 힘들고 인생에 거쳐 나가야 하는 단계 중 하나인데, 나도 그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어느 높이까지 이제 나만의 답은 가까스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다. '잘 할 수 있어.'라고 속으로는 몇 번을 매일 외쳤지만, 매번 그 다짐은 지속해 무너졌다. 2014년은 정신 없이 한순간에 지나고 일반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지겠거니 했지만,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또한, 학구열이 강한 동네 고등학교로 오니 많은 친구는 능력이 뛰어났고 그에 반해 스스로는 계속 작아져만 갔다. 180도로 변해버린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졌고 예전의 자존감 넘치던 나는 어딘가로 아련히 증발해버렸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가까스로 버티고 나니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계속되는 학업과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조임은 계속되었다. 이제 대입도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은 더 초조했고 불안했다.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던 나날에 나는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생겼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반 친구들이었다. 반응이 좋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께서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자존감을 높였다.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며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며 여러 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치며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표면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닌,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스스로만의 변화와 성장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어서 계속해서 남의 기준에 얽매이는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의 강점을 밀고 나가며 매일 나는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버텨낸 결과, 대학에 무사히 합격하게 되었다. 공부를 심화해서 배우고 싶다는 의지 덕분에 대학원까지 입학했다. 물론 아직도 대학원 생활을 거쳐 지나가면서 자책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180도 뒤집히는 악조건 의 상황이 자주 펼쳐진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느끼는 무기력감과 더불어 지속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 졸업 논문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능력이 과연 있는지 나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과 같은 느낌이 파도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오곤 했다. 마치 점점 굳어지는 돌처럼 마음의 짐은 점점 나를 누르는 상태였다.

이러한 좌절의 순간이 올 것 같을 때, 나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주장한 그릿( grit)이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상기시킨다. 이는 목표한 바를 열망하고 해내는 열정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끈기를 의미하는데, 나는 180도 회전하는 나의 인생 순간을 그릿이라는 마음속에 심어놓은 버팀목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릿은 교육적 측면 및 성공과 연관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목표들을 수행하는 예측 지표로써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예를 들어, 그릿이 높은 선생님들은 교육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성공은 항상 단기적일 수는 없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매일 노력하면 하나의 성과가 쌓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점을 더크워스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다음은 Sheryl Sandberg의 'Lean In'이라는 저서에서 나온 인용구이다. *"One of my favorite quotes from author Alice Walker, who observed, 'The most common way people give up their power is by thinking they don't have any'"* (p.63). 즉, 스스로 파워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자신의 강점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라는 Sandberg의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다. 누구나 본인만의 강점을 축소화시키고 과소평가 하지만, 가지고 있는 원석과 잠재력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기르는 다짐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야심적인 실패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의 일상이 180도 회전되어도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어렸을 적 본 영화 '쿵푸판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있다. 캐릭터 중, 우그웨이 대사부가 지난 일과 앞일을 초조해하며 걱정하는 주인공 포에게 건네는 말이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지금 이 '현재'가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라 해도 돌이켜보면, 각자만의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가치와 흥미로움을 증폭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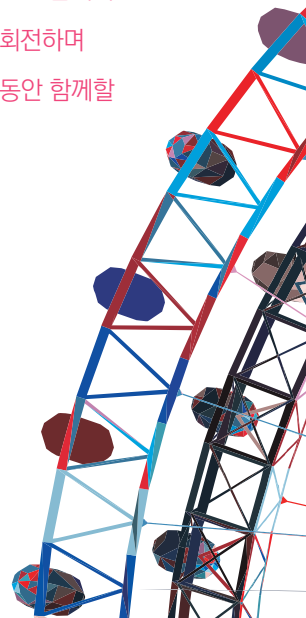
문학작품과 영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나는 그릿의 태도를 유지시켜 오고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회전되는 순간

에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곤경을 헤쳐나갔다. 진부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러한 진부함에 익숙해지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청소년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까지 마주하게 될 어려움의 순간들은 멀리서 보면 결국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와 버티는 자신의 원동력과 의지 덕분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인생이 항상 물 흘러가듯이 순탄하게 갈 수만은 없다. 그럼 무슨 재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로는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는데, 인간의 인생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다채로운 모습의 형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 본인의 삶이 180도로 돌아가고 뒤집히는 순간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굴곡진 부분까지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을 굳은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 가짐으로 살아가야 더욱 보람차고 알찬 한 번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선의 모양과 방향, 기울기를 바꾸면 도형의 형태는 매번 바뀌고 다채로운 형상을 띄게 된다. 거꾸로 뒤집히고 뒤틀리고 면적이 한쪽으로 쏠려도 나 자신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을 뿐, 여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변화하는 모습을 다양한 과정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지금껏 실패를 겪으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즐기면서 헤쳐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KAISTian 모두 '실패'라는 단어에서 부정적이거나 좌절이 함축된 이미지가 아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의 기폭제라고 여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염두에 두며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실패를 겪어가는 과정이 오로지 나쁘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써 내려갈 Failure Story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실패를 이겨내고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태도를 담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시 한 편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평소 유원지나 명소에 보이는 웅장한 관람차에 탑승하고 원으로 회전하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관람차 안에 탑승한 것처럼 회전하며 실패를 당당히 마주하면서 이겨내는 순간을 경험하고 실패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관람차

메마른 시공간을 적신 안개를 휘저으며  
터벅터벅 앞을 향해 발을 내딛며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공기 위를 걷는다.

숨사탕 같은 수증기는 손끝에서 물방울처럼  
톡톡 터지면서 물러나는 순간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관람차.

눈을 비비고 뼈격대는 문을 조심스레 열어  
관람차 한 칸에 몸을 맡기는 순간  
움직이는 시곗바늘의 오르막길.

명하니 안개가 자욱한 수평선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5분이 지나며 올라온 풍경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가슴이 벅차오른다.

30분이 지나며 올라온 풍경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의 외침,  
환희의 눈물이 차오른다.

수평선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작지만 사소한 이야기 꾸러미들이  
방울방울 모여 만들어진 세상.

그 찰나의 순간에게 기다리라 재촉하지만  
야속한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  
작별인사를 해야 할 시간.

서서히 닫히는 나의 기억 속 저장고  
45분과 60분 사이의 지점을 찍을 때  
함께 땅에 끌려가는 나의 몸.  
24분, 24시간이 지나고  
24일, 24년이 흐르고  
햇바퀴처럼 돌고 도는 여정.

내리막을 따라 내려와  
익숙한 공기를 크게 들이쉬며  
다시 땅에 발을 내딛는다.

오늘 하루, 한 바퀴의 여정도  
관람차에 고이 담아 놓고 땅의 눈높이에 맞추어  
뜨겁게 불타오르는 석양을 향해 달린다.

